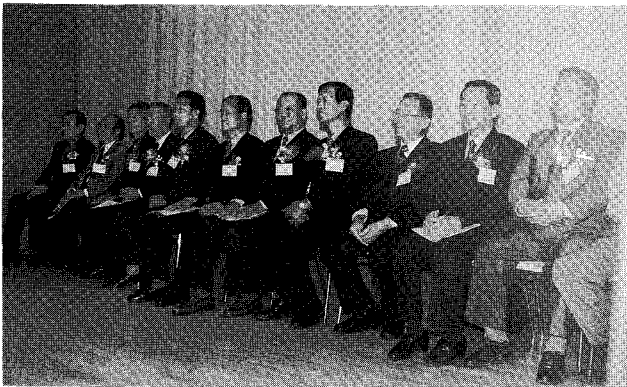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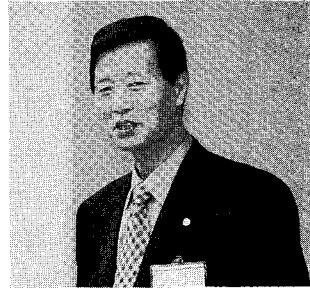
# 제13회 전국양계인 대회



제13회 전국양계인 대회가 본회 부산경남지부(지부장 김영진) 주관으로 지난 10월 27~28일 양일간에 걸쳐 경남 김해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양계인 및 관련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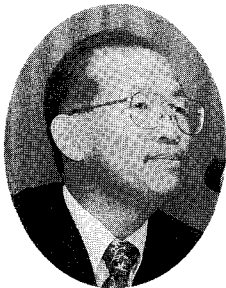
△이번 행사에는 본회 오봉국 고문, 정동홍 농림부 축산경영과장을 비롯한 관련 인사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.



△위기에 처한 양계산업들이  
끝어가기 위해 양계인들의 단  
합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는  
본회장대사(김영진)



▷부산경남지부에서는 이번  
대회가 성결적으로 끝나길 수  
있도록 물심양면 후원을 아끼  
지 않았다.(김영진 지부장의  
축사)



△“한국양계정책방향”을 주제로 정동홍 농림부 축산경영과장(좌), “정보화시대의 삶의 지혜”를 주제로 박완일 한국사회교육연구회 회장(우)의 특강이 있었다.



△양계산업 발전에 공헌한 양계인들에게 공로패가 전달되었다.(김동재 사장(좌), 정기섭 사장과 김정희 사장(우)) 수상자 : 김동재(송정농장), 김선웅(봉림농장), 이광초(경인축산), 김정희(울성농장), 정기섭(삼우농장) 사장

# 이 모 저 모



△3000여명이 행사장을 가득 채워 양계인 대회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.



△전국양계인들은 세계화·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로 양계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면서 우리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생업사수 노력, 국민보건증진 기여, 협회활동 적극 참여, 자조금사업 적극 동참 등을 결의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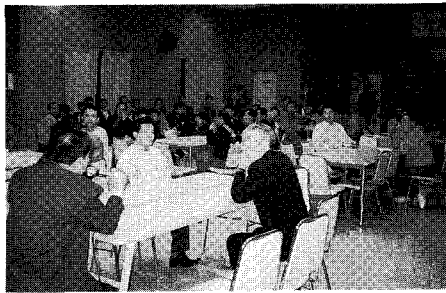


△사기진작 및 단합의 한마당으로 개최된 친선의 밤 행사에서 장기자랑에 입상한 수상자들의 모습.



△줄다리를 통한 단결(지역대표로 출전한 양계인들이 젖먹던(?) 힘까지 발휘...)

▷계란나르기 대회(계란이 굴러 떨어질까 상대팀에 뒤처질까 아슬아슬)



▷각양종별 부임토의를 통해 양계업 현안문제가 실도있게 논의되었다.



△줄다리기, 족구, 계란나르기 등 도별로 펼쳐진 체육대회 행사에서는 우승에 경기도팀, 준우승에 경북팀이 각각 차지했다.(우승을 차지한 경기도 대표팀)

▷양계산업의 발전과 차기 양계인대회를 기약하며 만세삼창

